



주 제:	“참된 순종”	“연중 제 26 주일 ”	2008년 9월 28일
복음 묵상:	[마태 21,28-32]	[에제 18,25-28]	[필립 2,1-11]

‘주님, 그래도 세리나 창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말씀 너무 심하신 것은 아닌지요... 그들도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을 어기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다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약속을 못 지킨 것뿐이겠지요. 처음부터 싫다고 거절하면서 복장 터지게 하는 것 보아야 그래도 대답이라도 잘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되지도 않은 말로 옹호하고 스스로의 위안으로 삼아보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동안 습관적으로 주님께 드렸던 뻔뻔스러운 대답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 것이 더 이상 우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마음을 바꾸어 아버지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문은 너무나 쉽게 ‘예’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제대로 ‘예’라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넓게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수석사제나 원로들처럼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전혀 변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세리와 창녀들처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강한 질책을 떠올리며, 또 다시 공수포가 될지라도 한 번 더 큰 소리로 대답을 해 봅니다.

‘예, 주님. 이번에는 굳은 마음을 지니고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마산 백 남국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진희 유스티나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여러해 동안 암과 투병중이시다 지난 9/23 일 오전에 주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과 가족들 함께 급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기도중에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여 주시길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부친의 간병차 한달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루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기쁨 속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지휘자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9/25(목)부터 10/1 일까지 산디에고로 가족 여행 떠날 예정이었으나 성가대에 사정이 생겨 일요일 미사후 떠나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김 재훈 세실리아 자매님과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채 간병중에 있어오니 하루 빨리 건강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알림 성탄 성가 연습은 10월 첫째 주일((10/5) 부터 시작합니다. 단 그사이에 매주 아침 연습은 계속있으니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음 [마태 21,2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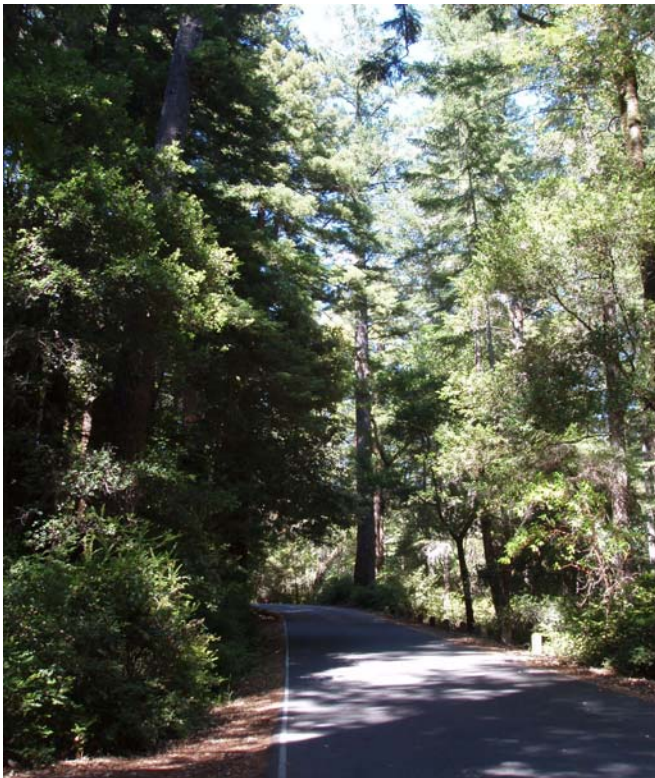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은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 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1분 명상

♡"오늘을 위한 기도"♡

이혜인 수녀님



오늘 하루의 숲속에서
제가 원치 않아도
어느새 돌아나는 우울의 이끼,
욕심의 곰팡이, 교만의 넝쿨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가는
끈끈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때는
어느날 닥칠 저의 죽음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겸허함으로
조용히 눈을 감게 하소서,

'모든것에 감사했습니다'